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월 10일(주일) 제1082호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2016 선교헌금 작성 ... 자동이체나 헌금봉투, 중보기도 및 재능기부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정체성 재확인하는 뜻 깊은 행사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며 돼지저금통을 헌금한 세살짜리 하윤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10일)도 '2016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실시한다.

오늘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에 자동이체(CMS)나 헌금봉투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기입하면 된다.

자동이체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선교헌금 작성 신청서에 신규후원인지 후원 연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소속캠퍼스, 성명,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 생년월일도 기입해야 한다. 작성금액은 금액란에 체크하고,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란에도 표시해야 한다.

헌금봉투 방식을 선택한 성도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을 적어야 한다. 선교헌금 봉투를 수령할 캠퍼스도 선택해야 한다.

성도들이 작성한 선교헌금은 73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854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신규 선교사를 훈련 및 파송하는데 사용된다. 헌금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와 기도편지를 제작하는 등 선교관련 사역에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다.

곳곳에서 선교헌금 관련 미담(美談)도 전해지고 있다. 남편이 선물해준 반지를 해외선교에 써달라고 헌금한 성도도 있고, 양하윤(만 3살) 어린이는 아프리카 선교에 써달라며 돼지저금통을 헌금했다. **〈관련기사 6면〉**

온누리교회는 매년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열고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16년 온누리교회 주요 목회 계획

러브소나타, 마리아행전, 부흥축제 개최

온누리교회가 2016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표어로 내걸고 사역한다.

오늘(10일)선교헌금 작성행사를 하고, 대학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목회사관학교(전임, 파트)가, 23일부터 25일까지는

신임목회사관학교가 열린다. 3월 5일에는 목양대회가, 20일부터는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린다. 4월 24일은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10주년이다. 5월 18일과 19일에는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가, 27일과 28일에는 창조신앙교육컨퍼런스가 개최된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마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7월과 8월에는 여름 아웃리치가, 8월 1일부터 6일까지는 하용조 목사 소천 5주기 기념주일을 보낸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부흥축제와 영성수련회가, 11월 22일과 23일에는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12월 12일부터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2016년 주요 목회계획

일 정	행사내용
1월 3일, 10일	선교헌금 작성
1월 15~17일	대학부 리더십컨퍼런스
2월 1~5일	목회사관학교(전임, 파트)
23~25일	신임목회사관학교
3월 5일	목양대회
3월 20~25일	고난주간 심야예배
4월 24일	인천 캠퍼스 창립 10주년
5월 18~19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27~28일	창조신앙교육컨퍼런스
6월 22~24일	마리아행전
7~8월	여름 아웃리치
8월 1~6일	하용조 목사 기념주간
10월 5~7일	부흥축제, 영성수련회
11월 22~23일	러브소나타 오카야마
12월 12일~4월 2일	40일 새벽기도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허문자 성도의 온누리교회 짝사랑

2012년 중국 길림성 산골마을에 선교사들이 CGNTV 안테나를 설치해주겠다며 찾아왔다. 마을사람 중에 허문자 성도만 신청했다. 그때부터 허문자 성도의 온누리교회 짝사랑이 시작되었다. 화면 속 온누리교회에 가보고 싶었다. 이재훈 목사도 만나보고 싶었다. 그녀의 짝사랑이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10월 허문자 성도가 한국에 온 것. 그녀는 지금 안산M센터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10년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왔다. 인력시장에 가면 체구가 작아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요리실력 하나는 자신 있었다. 그녀가 만드는 요리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다. 심양에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식모로 일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한 없이 친절하던 사장이 이유 없이 밥상을 얹으며 그녀를 내쫓았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그녀는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김치전도사’를 만났다. 김치전도사는 1년 동안 그녀를 전도했다. 김치전도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때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밥상을 얹으셨구나.”

김치전도사의 집에 머물면서 며칠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저희 남편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남편은 30년 동안 절에 다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 술만 마시면 손찌검을 했다. 3년 만에 어렵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얼굴만 봐도 화가 났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 한쪽에 예수님이 크게 그려진 달력이 걸려있었다. 그녀가 택배

로 보낸 달력이었는데 남편이 걸어 둔 것이다. 할렐루야! 1주일 이 지나자 남편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라고 했다. 당장 심양에서 그녀에게 세례를 준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사 일행이 심양에서 길림성까지 밤새 달려왔다. 극적으로 남편이 세례를 받았다. 행복에 젖은 것도 잠시, 중국 청도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폐병에 걸렸다. 온몸이 바짝 말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당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와 너희 아버지가 걷던 길은 사망의 길이다. 예수의 길을 가야 살길이 생긴다.”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주기도문을 읽어주면서 영접기도를 시켰다. 둘째 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했다. 이후 큰아들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지난해 10월 허문자 성도는 두 아들을 따라 안산에 왔다. 한국에서 예배드릴 교회를 찾기 위해 두 달을 고민했다. 조카가 소개해준 안산 한중교회에 가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2월 교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런데 조카랑 왔을 때에는 금방이던 한중교회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골목을 네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해도 한중교회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그 때 안산 온누리M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노규석 목사의 설교 소리가 건물 밖으로 흘러 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배가 한창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끄시려고 눈을 멀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요즘 매일이 즐겁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서 “자 빨리 예배가야지”라며 깨워 주신다. 그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자신이 변해야 가족들도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기도가 열매 맺고 있다. 큰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고백을 했다.

온누리M센터에서의 배움도 즐겁다. 그녀는 난생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이재훈 목사의 말씀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설레는 이유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 신앙 선배들을 찾아서 4



문창모 박사 흉상(위, 원주세브란스 제공)과 크리스마스 썰(아래).



참 의사, 참 그리스도인 문창모 박사

야성(野聲) 문창모 박사는 크리스마스 썰을 보급해 우리나라 결핵퇴치에 앞장선 인물이다. 지난 2000년 사상 초유의 의약분업 사태 때 “환자를 떠난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환자들을 진료한 일화로 유명하다. 신앙도 으뜸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서전 <천리마 꼬리에 붙은 쇠파리>에서 “천리마 꼬리에 꼭 붙은 쇠파리가 힘들이지 않고도 천리를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매달려 96년을 하루같이 무난하게 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6.25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서 환자를 치료했다.

그는 크리스마스 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이다. 문창모 박사는 1932년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세운 해주 구세병원에 취직했다. 홀 선교사가 그해 12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썰을 발행했는데 문창모 박사도 그를 도와 썰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그런데 일제가 홀 선교사에게 누명을 씌워 강제추방하면서 썰 발행도 중단되었다. 1953년 문창모 박사가 대한결핵협회를 조직해 크리스마스 썰 발행을 재개했다. 일제의 방해와 전쟁 등으로 중단되었던 썰을 범국민적 모금 운동으로 자리 잡게 했다. 결핵퇴치에 큰 공헌을 했다.

문창모 박사는 미 감리교선교회와 캐나다 선교부가 40만 달러라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1959년 건립한 원주연합기독병원(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다. 1964년 병원 근처 학성동에 ‘문이비인후과’를 열고, 2001년 은퇴할 때까지 환자 진료에 매진했다.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무료로 진찰해주기도 하고, 사정이 딱한 환자들에게는 여비도 보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농가 순회 진료도 했다. 1992년 국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을 당시에도 원주에서 새벽 진료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 의정활동을 했다. 항상 환자가 우선이었던 그는 다리와 손에 마비증세가 와서 더 이상 의료기를 쥌 수 없게 되자 2001년 은퇴했다. 이듬해 숙환으로 소천했다.

지난 4일, 문창모 박사가 근무했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다녀왔다. 그곳에 문 박사의 흉상이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흉상을 볼 수 없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문창모 박사가 다녔던 원주제일교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병원 정문을 나와 오른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십자가 첨탑이 보인다. 그 교회 잔디밭 한쪽에 ‘문창모 장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가 진료했다는 ‘문이비인후과’ 터도 보였다.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도보로 20여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다. 아쉽게도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곳에서 “의사 면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른 외적인 상황들은 자신이 환자를 보는데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고 말한 문창모 박사를 되새겨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대적자를 대리자로

사도행전 9:1~16

“주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증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선교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인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대륙을 관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전과 서신들이 신약성경에 3분의 2분량으로 기록되어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안티오회, 안티에수의 원조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자요, 대적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스테반이 순교하는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스테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올 테니 그곳의 회당장들에게 공문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 공회원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수형원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부르시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1~2절).

굳이 다메섹까지 쫓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어느 청교도학자는 이것은 틀림없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과잉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스테반의 모습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벌받는 자가 처벌하는 자

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스테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마음을 덮으려고 더 열정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행 26:9~11절).

그는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임 당할 때 찬성하고, 여러 회당을 다니며 처벌하고, 모독하고, 다른 나라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 처벌하고, 처형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사울을 주님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을 빨리 처벌하여 주십시오”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로 사울은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고, 교회의 가장 강력한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대적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사울의 헬라어 실력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셨다면 베드로에게 헬라어 방언을 주셔서라도 사역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복음전도자로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그가 복음에 가장 큰 대적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유는 부수적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을 갖춰야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나에게 있는 조건을 쓰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명명한 부르

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능력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부르심을 따라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에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우리교회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선교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헌금이 모이면 선교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능력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의 성도가 모이면, 헌금이 얼마가 걷히면,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큰 교회들이 빠지는 교만과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그냥 붙어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완고하고, 편협하고, 자신의 이념에 사로잡힌 무서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요, 원수였던 사울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를 품고 대적자에서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잡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취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3~6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외면했지만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을 때 강렬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빛이신 그 자체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쳤을 때 사울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협과 고집과 이념에 포로가 되어서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엎드려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비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의 확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또 하나의 충격은 예수님이 사울을 따듯하고 인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친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또 한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하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는 사상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체들과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단순히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12면에 계속)

난민사역의 본질은



신년기획_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선교지

1. 이주민교회와 이주민선교
2. 난민사역

요즘 난민 문제가 이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한 전 세계 난민 수가 대략 3천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그 숫자가 두 배로 늘었다. 전 세계 난민이 6천만 명이나 된다.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왔고, 3,800명이 바다에 빠졌다.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꼬마 난민 아이란쿠르디의 죽음으로 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장벽을 허물었다가 파리 테러로 그 문이 다시 닫혀버렸다.

5년째 불타고 있는 시리아에 이어 예멘에서도 내전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에서 IS(이슬람국가)의 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이슬람의 두 맹주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중동 전체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 와중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했다. 한반도에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야말로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의 시대가 시작된 것일까?



이호택 대표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198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4년 6월~현재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외국인 난민 사역
1999년 6월~현재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난민이 무엇이고, 발생하는 이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는다. 돈을 벌거나 유학, 결혼을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전쟁이나 박해 때문에 원치 않게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전쟁이나 박해, 분쟁으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타국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난민들이 왜 한국까지 오죠?”

한국인들이 난민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한국에도 난민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타의로 한국까

지 오게 되었다.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황급히 탈출한 난민들에게는 탈출할 나라를 선택할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 어디든지 갈 수만 있다면 가는 것이다. 북한에 가는 줄 알고 왔는데 한국이었다고 말하는 난민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현재까지 1만5천명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난민 신청자가 매년 1천명을 넘고 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중국, 스리랑카, 시리아, 이집트, 네팔, 우간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카메룬,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예멘, 코트디부아르,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등지에서 왔다. 대부분 분쟁 지역이나 독재국가들에서 왔다. 최근에는 중동권 무슬림 국가(시리아, 이집트, 예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서 온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레반에 의한 치안 불안, 네 팔은 마오이스트 반군과의 내전, 스리랑카는 타밀 반군과의 내전, 중국은 파룬궁 수련이나 민주화운동, 소수민족운동,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나, 콩고,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내전, 독재, 종족분쟁, 방글라데시는 소수 쯤머민족에 대한 박해 등이 난민신청 사유다. 미얀마는 군사독재국가로서 동남아시아 최대의 난민발생국이다. 아웅산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의 민주화운동이나 친(Chin)족 등 소수민족 박해와 관련된 사유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난민협약과 유엔난민기구

(UNHCR)를 통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7월 1일 발효된 난민법을 통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난민보호는 난민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난민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박해가 소멸돼 자발적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피난처를 제공해 체류와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호를 요청하는 외국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 또한 난민 보호의 핵심이다.

‘사단법인 피난처’는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률지원, 통역지원, 입증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주거, 의료, 교육,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박해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난민들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난민은 단순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필자는 난민사역의 본질이 인권보호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흔히 난민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콩고 난민 출신으로 지금은 광주대학교 교수가 된 음비토나씨와 함께 강남, 종로, 구로 공단 등지에서 6개월 동안 난민보호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보면 전단지를

받지 않고 피해가기 십상이다. 우리는 께를 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화려한 색상의 전통의상을 차려입고,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꼼짝없이 우리가 나눠주는 전단지를 받아 읽을 수밖에 없었다. 신호등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30초 동안 ‘한국에도 난민이 있어요’라는 글자를 보고 지갑을 꺼내 모금함에 돈을 넣고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지갑을 열었다. 사실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피난 온 난민들의 삶은 가난하고 고단하다. 그렇다고 난민들을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경 가운데로 불러내신 사람들이다. 필자는 그들을 ‘사명자’라고 명명한다. 실제 난민들 중에는 역경을 용기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희망적인 삶을 개척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난민사역의 모토(Motto)와 비밀

필자는 법을 전공했다. 변호사가 되고자 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할 즈음 오른손에 미세한 마비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10년 이상 노력한 사법시험이었는데 결국 눈술형 답안을 쓰지 못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고시 실패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다. 하나님은 고시난민이 된 나를 난민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외국인 노동자, 조선족, 탈북자, 난민사역을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은 10명의 풀타임 동역자들과 함께 사단법인 피난처에서 난민들을 부르고, 세우는 일을 담

인권보호 활동이 아니다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아닌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
한국에도 난민이 있다 ...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난민사역에 동참해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난민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난처 난민사역의 모토이자 비밀이다. 우리의 난민사역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 성경에서 배운 지식이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성경에는 난민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아담, 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도 한때 난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이유로 고난을 당했고, 더 많은 경우는 분명한 자기 잘못으로 난민이 되었다. 하나님은 난민체험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었고, 그들을 세우실 때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셨다. 나는 실패해서 난민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 난민사역의 비밀이 참으로 깊고 묘하다.

난민사역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국내에서 난민사역을 시작한 기독교 NGO 사단법인 피난처에는 하루 평균 10명의 난민들이 난민인정 절차나 소송과 관련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다. 정치활동, 인종이나 부족 간 갈등, 내전, 개종 등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호소하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6.4%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는 사람들을 합쳐도 17.2%에 지나지 않는다.

난민인정 외에 또 다른 사역의 근거가 필요하다. 난민인정 여부나 인정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각자의 형편대로 부르시고, 만지시고, 빚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믿음, 설령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내시고, 피난처를 준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난민인정 여부가 아니다. 난민인정을 위해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허황된 확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지극히 낮은 난민인정 비율에서 알 수 있듯 수차례나 난민인정이 거절된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씨

름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언젠가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믿음과 승리의 간증이었다. 끝내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 등의 방법으로 미국이나 호주 등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다.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들을 덮어 보호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사례들이 답이 없어 보였다. 난민인정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난민문제의 핵심은 박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이다. 난민사역이 다른 사역과 다른 특징도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난민사역은 난민들이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난민들이 두려움 없는 평화를 누리도록 돕는 것이 난민사역의 핵심이다.

사단법인 피난처를 NGO로 등록할 때, 정체성을 고민했었다. 인권단체로 할 것인지 기독교 단체로 할 것인지를 갈등했다. NGO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단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다. 그러나 난민사역의 핵심이 인권 개선이 아니라 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체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기독교 NGO라는 정체성이 불편한 제약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물론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니다. 난민법률지원, 실태조사, 생계지원, 숙소제공, 의료, 교육, 난민지원센터, 난민지원 네트워크, 난민법 제정운동 등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가 인권운동을 하면서도 견지한 유일한 태도는 인권운동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난민단체라면 난민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난민의 인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난민이든 인권이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되면 우상이 되고 만다는 진리를 명심하게 되었다.

난민선교, 이렇게 하면 된다

난민사역은 가장 어렵고 소진되는 사역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매력 있다. 예

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난민의 두려움을 평화로 바꿀 길이 없다. 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난민사역은 반드시 난민선교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난민사역 초창기 때, 내가 도우려던 어느 라이베리아 난민이 던진 질문이 가슴 깊이 박혀있다.

“전쟁을 겪어 보았습니까? 피비린내를 맡아보셨습니까?”

인간적 경험이나 지식으로 말하면 난민들이 경험한 혹독함과 처절함을 능가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인간적 자산으로 난민들을 돕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사역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난민사역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지혜와 재주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과 생명의 위협 앞에 선 사람들의 생사문제를 다루고, 도울 수 있단 말인가. 난민사역은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한다. 사단법인 피난처는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의 후원으로 ‘난민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 그리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및 케이스 매니저가 함께 모여 측정 가능한 멘티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최소 6개월 동안 멘토와 멘티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프로그램이다. 피난처는 초창기부터 자원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지만, 일시적인 자원 활동으로는 난민의 수요와 자원 활동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민들에게는 변화의 목표와 성과 중심의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했고, 자원 활동가들에게도 일시적 소모활동이 아닌 난민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컸다. 난민과 자원 활동가들의 필요를 연결하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케이스 매니저가 활동을 안내하고, 정기적인 활동보고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이 바로 ‘난민멘토 프로그램’이다.

난민사역의 목표 ‘재생산 능력 회복’

난민들도 언제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역경 가운데에서 자립한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들이 제자와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환난 중에 있는 다른 난

민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난민들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 난민들 각자의 은사와 비전을 따라 다양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난민들이 적성과 비전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야 한다.

결국 난민사역의 목표는 변화된 난민이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재생산 능력이 회복된 난민이다. 이를 위해 피난처가 역량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다.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다. 난민 커뮤니티 교육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난민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강점들을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도 난민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고 환영하게 될 것이다.

사단법인 피난처에 난민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다. 매주일 오후 5시에 예배드리고 있다. 난민 출신 목회자들이 섬기고 있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난민들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존귀하게 섬기기를 바란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난민들을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바다와 육지에서 지금도 비극을 맞고 있는 난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난민선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한국에 많은 이주자들을 보내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린다. 한국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일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사단법인 피난처는

국내 난민 문제를 최초로 다루기 시작한 기독교 NGO 단체로 1999년 9월 창립됐다. 국내외 난민과 북한난민의 구호, 재난 및 분쟁 방지와 국제협력, 국제평화와 인권 증진 및 안전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의 비영리법인이다. 난민인정절차지원, 숙소와 생활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선교헌금,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

세 살짜리 하윤이의 첫 선교헌금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세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밥을 못 먹어서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세 살짜리 꼬마가 핑크색 돼지저금통을 헌금하면서 한 말이다. 이 기특하고 귀여운 아이는 양 하윤이다. 세 살짜리 하윤이 말고도 선교헌금 관련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남편이 선물로 준 반지를 해외선교에 써달라고 한 성도도 있다.



돼지저금통을 선교헌금으로 봉헌한 세살짜리 꼬마 양하윤(왼쪽), 남편이 선물한 반지를 선교에 써달라며 보낸 편지와 반지.

하윤이 엄마 김미라 성도는 2008년 5월 온누리교회에 왔다. 당시 그녀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녀를 가만 둘 리 없었다. 지치고, 괴로워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녀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시기에 청년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도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그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다. 둘은 그렇게 사랑을 싹틔우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두 사람 사랑의 결실이 바로 하윤이다.

하윤이가 돼지저금통을 산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마트에 갔는데 돼지저금통을 사겠다고 졸랐다. 돼지저금통이 왜 필요한지 몰랐다.

“이걸로 헌금 할 거야.”

헌금을 한다는데 안 사줄 수가 없었다. 하윤이는 헌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헌금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하윤아, 용돈이 생기면 맛있는 것을 사먹거나 필요한 것을 살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어느 날은 하윤이가 천 원짜리 한 장을 내게 주며 말했다.

“엄마, 이거 할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주셨어.”

그 돈은 할아버지가 하윤이에게 과자를 사 먹으라고 준 것이었다. 하윤이가 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엄마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살짜리 꼬마

가 어쩔 이렇게 영특한지 모르겠다.

하윤이는 저금통을 헌금통이라고 부르면서 차곡차곡 동전을 넣었다. 동전을 모으는 습관은 외가에서 보고 배운 것이다. 그녀는 하윤이가 단순히 동전을 모으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줬다. 착한 행동하기,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기, 밥을 잘 먹기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동전을 주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가을쯤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방영됐다. 엄마와 함께 TV를 보던 하윤이가 “저 친구들은 왜 밥도 못 먹어?”라고 물었다. 하윤이의 눈에는 아프리카 친구들의 굶주림이 이해가 되지 않았나보다. 엄마는 하윤이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하고, 물도 절약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윤이에게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지금도 하윤이는 하루에 1~2번은 빼놓지 않고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한푼 두푼 모은 저금통을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헌금한 것이다. 그 돼지저금통은 하윤이의 첫 선교헌금이다.

하윤이와 하윤이 엄마 이야기

세 살짜리가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 평소 아이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했다. 김미라 성도는 특별한 신앙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하윤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영아3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녀는 하윤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윤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생각보다 이해력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듣고, 배운 내용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녀는 하윤이를 데리고 서점에도 자주 간

다. 보고 싶은 책을 고르게 하고, 한 주 동안 그것만을 함께 읽는다. 베드로 이야기, 그 다음은 다윗 이야기를 읽어주면 아이가 잘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녀는 오히려 하윤이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같이 놀면서 “엄마는 하윤이를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면 하윤이는 “하나님은?”이라고 되묻는다. 어른들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데, 하윤이는 삶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윤이가 돼지저금통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도 많다. “이번 달 헌금을 조금 줄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하윤이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윤이의 아빠도 하윤이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윤이 아빠 양종수 성도는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하윤이의 선교열정은 엄마를 닮았다고 했다. 하윤이의 엄마 김미라 성도는 청년부 활동을 할 당시에 선교팀 소속이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어 했다. 결혼 후에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간직했다. 남편과 상의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는데 하윤이가 생긴 것이다. 아쉽게 선교사로 헌신하는 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윤이를 보니 그 어머니에 그 딸이 분명하다.

하윤이의 태몽도 심상치 않았다.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예전에 다녀왔던 이스라엘 땅을 걷고 있었다. 최종 목적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호랑이 떼가 길을 막고 있었다. 호랑이를 보자 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포기하려 할 때 곁에 누군가 서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가이드라고 했다. 그 가이드가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너와 함께 걸어왔는데 몰랐느냐. 걱정하지 말고 앞을 잘 보라.”

다시 앞을 보니 호랑이를 닮은 개들이었다.

그 가이드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저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가 용기를 냈다. 개들이 위협했지만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업혔다. 그 호랑이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다.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하윤이가 생겼다.

그녀는 하윤이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씩씩하고 용감한 호랑이”라고 말해준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준다.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준다고 해준다.

그녀는 하윤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하윤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 하윤이의 태몽이 사랑이다. 그녀는 하윤이가 어디서나 사랑을 받는 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다.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윤이에게 헌금한 돼지저금통으로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아프리카 친구들이 밥도 먹고 물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윤이뿐만 아니라 선교헌금 관련 미담이 많다. 온 식구가 선교헌금 작정행사에 참여한 집도 있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으로 선교헌금을 한 부부도 있다. 남편에게 선물 받은 반지를 해외선교에 써달라고 헌금한 성도도 있다. 역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 10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마틴 루터의 흔적을 찾아가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루터의 흔적을 시간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공간적으로 따라가 보았다. 시간적으로 따라갔다면 아이스레벤에서 시작해 아이스레벤에서 끝나야 한다. 그곳이 루터의 출생지인 동시에 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다. 광부였던 그의 아버지는 당시 관습대로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가서 하나 남게 보였다고 한다. 그래야만 온갖 질병(특히 돌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 생활을 하다 철광석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고생해 본적은 없었다. 그래도 어렵게 살고 있는 광부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는 사제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과부가 된 광부의 아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남편을 위한 면죄부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남편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루터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면죄부 값을 돌려주었다는 일화가 있다.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사역을 위해 아이스레벤을 방문했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루터의 출생지와 사망지는 박물관으로 꾸

며져 있다. 성안나교회는 만스펠트 지방에서 루터의 개혁신앙을 지지한 첫 번째 개신교회였다. 이 교회 안에는 성경책 석조상과 29개의 부조판이 있다. 네 명의 복음서 저자와 구약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조각되어 있다. 루터의 생가 바로 근처에는 성베드로바울교회가 있다. 이곳이 루터가 태어나자마자 하나 남게 보여드린 곳이다. 그가 세례를 받은 교회다. 성안드레아스교회는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곳이다. 루터의 시신이 비텐베르크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치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에르프르트(Erfurt)이다. 루터는 에르프르트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공부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인문학을 공부하다 아버지의 권고에 따라 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가 옆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루터는 어거스틴(Augustine)수도원에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했다. 수도사로서 서품도 받았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원장이 루터에게 신학을 공부할 것을 권하였고,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게 됐다. 루터는 처음에는 수도사(Monk)로 시작해 다음에는 설교자(Preacher), 나중에는 개혁자(Reformer)가 되었다. 그는 사제가 되었어도 죄와 구원의 문제, 행위와 은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루터에게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 결국 로마서에서 그 해답을 찾고 새로운 영의 눈을 뜨게 되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였다.

에르프르트에서는 에르프르트대학과 어거스틴 수도원, 루터가 사제 서품을 받은 세인트메리교회, 친구가 벼락에 맞았던 자리 루터

루터의 흔적 찾는 마지막 여정 ‘아이스레벤’



루터가 사제로 서품받은 교회.

스톤, 그가 설교했던 이벤젤리교회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어거스틴 수도원은 꼭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미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몇 가지 더 들고 싶다. 먼저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당시 사회구조는 15%의 귀족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농민들이 혁명을 필요로 하고 있던 차에 루터의 등장은 메시아의 출현과 같았다. 농민들은 그런 의미로 루터의 개혁을 적극 지지하였다. 두 번째는 가톨릭교회의 타락이다. 당시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 집단으로 전락했다. 권력 이면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의 결말은 타락이었다. 면죄부 판매가 대표적인 사례다. 교회에 대한 반발은 견제를 수 없이 심해졌고, 영적 쇠신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다. 95개 조항 반박문과 독일어 성경은 인쇄술 덕

분에 신속하게 독일 전역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그의 방대한 분량의 저서들도 쉽게 출판 보급될 수 있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중세교회의 증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교회가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질을 잃고, 타락할 수 있다는 개혁신앙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앙의 흔적을 돌아보고 쓴 글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박승훈 전도사(남양주 차세대)



영화 ‘히말라야’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이 영화보다 먼저 개봉한 영화 ‘에베레스트’가 산에 오르는 험거운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했다면, ‘히말라야’는 원정대의 의미와 고충을 잘 드러냈다. 2004년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목숨을 잃은 후배 동료 박무택(정우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휴먼원정대의 가슴시린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가 다소 갈렸다. 실화의 감동을 잘 그려냈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의도적 감성 호소에 실망한 관객도 있었다. 필자는 자녀와 함께 한번 더 이 영화를 볼 것이다. 이 영화는 도전, 체력, 팀워크(teamwork), 희생 순으로 이야기를 그려 나간다. 엄홍길 대장의 몸 상태 악화와 굶은 날씨, 고산병, 생사가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나누는 대원들의 말이 참으로 소박하다. 무엇보다 동고동락하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들을 보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감히 산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굶어치는 인생살이 속에 안전한 삶을 누리기보다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도 느꼈다.

극중에서 “산을 정복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박무택 대원에게 엄홍길 대장이 “우리 산쟁이는 정복이란 말 안 씁니다. 운 좋게 산이 허

그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

락해서 잠시 머무는 거죠”라고 말한다. 그렇다.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르려는 의지는 정복이라는 단어보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정복이 주는 희열보다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 대면하려는 의지가 더 잔잔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엄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소박하게 말한다.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필자에게는 이 말이 “우리팀이 불확실한 두려움을 이겼다”는 말로 들렸다.

정상에서 내려오던 도중 해발 8750m에 에베레스트 테스존에 잠들고 있는 박무택, 박정복, 정재현 대원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례 없는 원정을 준비한다. 그렇게 대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벽 ‘아이스 폴’을 지나 방하의 갈라진 틈 ‘크레바스’를 넘나드는 장면이 묘사된다. 팀원들은 서로의 몸에 로프를 연결하고 조심스럽게 발

걸음을 내딛는다.

필자의 마음에 ‘공격’이라는 말이 남았다. 실패 후에 다시 공격하리라는 말은 분질적인 두려움을 품고 있는 인간의 삶이 끝이 아님을 예고한다. 실종된 박무택 대원을 찾아 어떠한 보상도 없이 떠난 원정대의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과 같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가장 선명하게 남은 장면이 고산 등반을 위해 체력, 테크닉, 전략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었다. 코믹하게 그렸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장시간 걸어야 하는 ‘도보행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극한의 추위’,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가 팀원들을 연합시켰다. 두려움 앞에 몸부림치며 등반하기 위해 훈련하는 모습이 마치 차세대의 훈련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자녀들과 함께 영화 ‘히말라야’를 다시 한번 보며 차세대가 앞으로 신앙의 모험가가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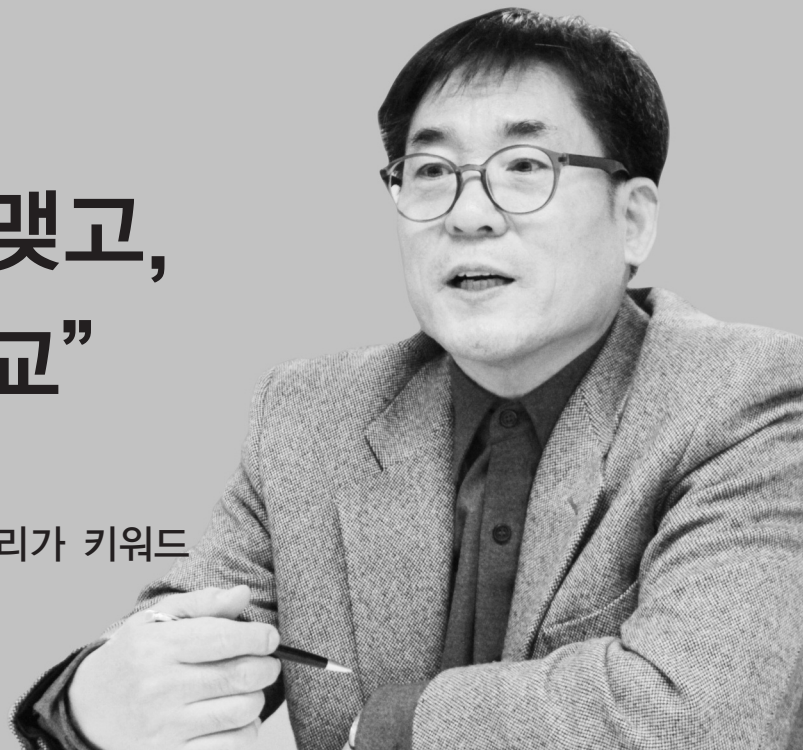


본지에서는 새해를 맞아 12개 사역본부장에게 올해 사역계획과 방향, 포부를 듣고 있다. 이번 주에는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 전도사역본부장 여성민 목사,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를 만났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

“이웃들 찾아가 관계 맺고, 섬기는 것이 사회선교”

모두 함께, 봉사영역 개발 및 실행, 교회와 사회 연결고리가 키워드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 뿐만 아니라 사회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붙잡고, 그 비전을 따라 시간, 재능, 물질, 은사들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사회선교본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선교는 어떤 교회건 목회자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는 2014년 출범했습니다. 기존 구제봉사와 긍휼사역 등을 사회선교라는 이름으로 묶고, 지경을 넓힌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사회선교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선교는 해외 선교와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사회선교는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기도하고, 물질 후원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운 노인들, 홀로 된 아이들의 문제는 배가 고파서 생긴 것보다 관계가 없어서 생긴 것이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적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의 비전이자 포부입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

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 교회가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교회들은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그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한국사회의 한 부분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선, 지속성 있는 사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사회선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올해 사회선교부의 구체적인 사역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회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회선교를 오해하는 성도님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회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선교가 무엇인지 신학적,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동아일보(2015년 12월 12일자)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사회선교의 방향을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태어난 교회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땅 끝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도 선교 현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 주셨듯이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고통 받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 참여는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과 청년, 장년층, 어르신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

의 교회는 부분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 둘째, 기존의 사회봉사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봉사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회봉사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 생명과 환경, 청지기 사역에 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구제봉사와 긍휼 대상을 찾아가 돕는 기존의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봉사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일례로 러빙유 청년 벤처대회, 러빙유 청년부채해결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사랑채버와 온사랑합창단 운영, 독거노인, 탈북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교회 외부의 사회봉사 시설, 단체와 연계 및 신설을 통해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내용이 올해 사회선교부의 사역 방향 및 사역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기존의 봉사를 지속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외부 단체와 협력하고, 뒤에서 후원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봉사영역 개발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저는 평소에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한집에서 공동 생활하는 것을 기획했는데 호응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3포(연애, 결혼, 출산), 5포(3포에 취업, 주택구입), 7포(5포에 인간관계, 희망)세대라고 할 만큼 청년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가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통일 시대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면 통일이 되도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이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해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탈북사역에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에 탈북사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목회자를 세워 통일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올해 표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보여준다는 말은 곧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사회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몸, 시간, 물질로 보여줘야 합니다. 올해 ‘1다락방 1사역지’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추천을 받은 가족과 결연해 교제도 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는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중심의 선교가 더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고, 하나 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피부로 느끼고, 공동체와 동지 의식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선교입니다.”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선교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거처 없이 가난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회선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기쁨으로 사회선교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전도사역본부장 여성민 목사

“전도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맞춤전도집회, 군 선교, 병원선교, 열린 예배 집중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전도는 삶의 목적이자,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행사나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보다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전도사역본부장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전도사역본부장은 크게 4가지 분야의 전도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맞춤전도집회, 군 선교, 병원선교, 열린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도콜센터 사역 안에 전도폭발훈련과 전도학교가 있었지만,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 전도폭발훈련과 전도학교(전도콜센터)가 운영됩니다.

맞춤전도집회는 연령이나 직업 등으로 전도대상자를 선별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도집회를 말합니다. 부부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전도집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군 선교는 부대를 찾아가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위한 맞춤전도집회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7회 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5월 연무대군인교회에서는 훈련병 2,60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병원전도는 세 가지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 김경숙 목사가 내주하면서 생명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팀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원전도팀은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성도의 친구, 친척들을 위해서 기

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병원전도팀이 언제든지 달려 갑니다.

전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학교, 전도폭발훈련, 전도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도콜센터는 매주일 교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전도와 관련된 요청이 있으면 전도학교 훈련생들이 찾아갑니다. 전도폭발훈련은 주중에 장소를 정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전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고, 깨어지고, 소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대상자와 함께 교제하고, 화합할 때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전달됩니다. 특히 전도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전도에는 형식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

게 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의 표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주변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역이 있습니까?

“올해 전도사역본부는 개인, 순, 공동체 별로 체계적인 맞춤전도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인 맞춤전도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인은 방송인, 법조인, 의료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40~50대 남편들을 위한 전도집회 비긴어게인 후속프로그램이 1월 23일에 실시됩니다. 올해 장애인들의 부모님과 가족 맞춤전도집회와 5월은 모든 공동체 ‘순 맞춤전도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교회 사역팀과 연합하는 전도집회도 필요합니다. 여성사역, 수요예배, 열린 예배, 차세대, 대학청년부와 끊임없이 이 비전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훈련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성사역본부장 조호영 목사

“마리아행전이 여성사역의 비전입니다”

묵상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돕는 여성사역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사역본부는 온누리교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여성은 한 가정의 믿음의 여인을 뜻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이자, 딸이기도 한 여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위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성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대표적으로 예배와 기도, 양육, 전도, 성경공부, 문화, 교회봉사, 사회선교, 해외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은 전 캠퍼스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이 가장 잘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매달 전 캠퍼스 여성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이 모입니다. 함께 사역과 정보를 나누며,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됩니다.

매년 6월, 마리아행전이 진행됩니다. 마리아행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부흥기도운동입니다. 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2일~24일에 마리아행전을 합니다. 마리아행전을 위해 매주, 매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 진행되는 ‘여성맞춤전도’는 결신율이 높습니다. 새신자 양육과 교회 등록, 세례까지 이어져 은혜가 넘칩니다. 또한 ‘성경일독학교’가 각 캠퍼스마다 진행됩니다. 이것은 여성사역의 대표적인 성경공부입니다. 여성사역의 ‘큐티나눔방’도 빼놓을 수 없습

니다. 큐티 베이직 과정은 4주를 진행하지만 여성사역의 큐티베이직은 보통 7주 필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4주 큐티베이직 이후, 3주의 그룹별 큐티 나눔과정을 통해 큐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릎기도학교’는 10년 간 진행된 사역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입니다. 오전에는 선교사 사역보고 및 기도를 하며 오후에는 나라별 기도를 합니다. 무릎선교사들의 대부분들은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며 중보합니다. ‘좋은어머니스쿨’은 어머니를 위한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비크리스천 여성 30%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 외에도 서빙고 여성사역은 작년부터 ‘모세기도방’을 운영합니다.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제목, 교역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성사역 사회선교 좋은이웃모빌팀은 각 캠퍼스별로 운영됩니다.”

올해 여성사역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작년 맞춤전도를 통해 수십 명이 결신하고 세례를 받고, 양육받았습니다. 마리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확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각 캠퍼스별 양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웃리치를 통한 프로그램과 직장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큐티나눔방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2016년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기도훈련을 할 것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사회로 들어가 섬기는 여성이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역을 개발하고, 가정예배를 통해 집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안광복 목사
청주 상당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안광복 목사

안광복 목사가 청주 상당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청주 상당교회는 1976년 세워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다. 예배인원이 성 인기준으로 4~5천 명 정도다. 안광복 목사는 “온누리교회에서 1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훈련받았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잘 접목해 중부권 허브 역할을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겸손하고 충실하게 섬기겠다”고 말했다. 안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12월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서빙고, 양재, 남양주, 대전,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이사엘 목사
(도곡차세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신학을 전공했다.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를 섬기다 2015년 12월부터 도곡교육관 파워웨이브(고등부)를 섬기고 있다. 이사엘 목사는 “교회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승현 전도사
(양재차세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월 졸업예정이다. 2013년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년 2부와 JDS키즈, 유년1부, 사이닝키즈를 섬겼다. 올해부터 양재 유년1, 3부를 섬긴다. 유승현 전도사는 “예수님을 바로 보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역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영철 전도사
(양재예배본부)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졸업했다. 영락교회 대학부를 섬기다 2013년 5월부터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다. 올해부터 양재 예배본부(도곡 예배)와 안양평촌공동체를 섬긴다. 한영철 전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강현 전도사
(양지 성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월 졸업예정이다. 2014년 인천 온누리교회 중등부를 담당하다 지난해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소년2부를 섬겼다. 올해부터 양지 성인 공동체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이강현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참 목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임목회자

오민 목사
(양재성인)

보스턴 고든콘웰신학대학교 신학 석사를 졸업하고, 보스턴 온누리교회에서 2006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역했다. 올해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강남A공동체를 섬긴다. 오민 목사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한호 전도사
(양재여호수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월 졸업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군산 꿈의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고, 2013년 8월부터 서빙고 온누리교회 청년부 요셉공동체를 섬겼다.

올해부터 양재 여호수아공동체를 섬긴다. 정한호 전도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진실되게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종현 전도사
(인천 성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빙고 예배본부에서 사역했다. 올해부터는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예배총괄과 대학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종현 전도사는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

온누리교회 및 11개 협력기관 2016년 시무예배

온누리교회와 11개 협력기관이 ‘2016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지난 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누리교회와 11개 협력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Acts29 비전빌리지, CGNTV, 두란노서원, 아버지학교, 경배와 찬양, KIBI, 에펠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NGO 더멋진세상)이 한 자리에 모여 시무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와 11개 협력기관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무예배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를 주제



시무예배에서 직원들이 활짝 웃고있다.

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 함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아기예수탄생 그림공모전 시상식

지난 3일 도서관사역팀이 차세대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아기예수탄생 그림공모전’에서 손은채(7살)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믿음상은 이신영(11살) 어린이가, 기도상은 박시후(10살) 어린이가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손은채 어린이는 마

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예수를 그렸다. ‘아기예수탄생 그림공모전’은 지난해 12월 13일과 20일에 개최되었다. 7세부터 13살까지 어린이 40명이 참가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평택 청년들과 멘토들,
무박 2일 신약통독

평택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밤을 새워 신약성경을 통독했다. 평택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과 멘토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교육관에 모여 다음날까지 무박2일 동안 신약성경을 통독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키우자는 취지다.

강동, ‘시대를 분별하라’ 주제로 예배

지난주에는 교회와 나라, 선교지 위한 기도회

강동 온누리교회가 1월 한 달 동안 3부 예배를 ‘시대를 분별하라’를 주제로 드린다. 오늘(10일)은 이슬람을 분별하라(이만석 선교사), 17일은 이단을 분별하라(탁지원 소장), 24일은 동성애를 분별하라(태희 목사), 31일은 중독을 분별하라(전정우 전도사)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지난 주일(8일)에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다. 강동 온누리교회 3부 예배(청년부 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

사의 영상설교를 통해 2016년 온누리교회 비전을 나눈 청년들이 80여 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강동 지역과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 북한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하규 형제는 “하나님이 사해에 행하실 일이 기대된다”고 했고, 국명정 자매는 “역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월 양재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1월 1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15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김경연 김영두 김은정 남세진 안영진 지혜숙	강남C 김기원 박성우 윤형기 이경혜 이승구 이주연 임서연 정현택 진경자 홍순모 홍승진	동우진 문원주 박수영 이상현 조은주 황윤준	이옥련 이정윤 조경숙	서초C 권유경 김상경 박광문 손현진 윤강숙 이경희	안기현 양준호 이지선 이지은 정미영 조용남	안양평촌 김진숙 송연숙 심소연 이균원 이은자	조금옥 채수진 최명희 탁지연 하찬진 한상진 홍정희
강남B 김형중 박혜성 이미현 이찬영 최진	강남D 김민혁	과천의왕 강향이 안천환	분당B 김대두 염옥희 윤태홍	서초D 김민희 김정수 남성현 박승석 방현 신윤철	송파 김찬우 박성희 신민수 이승준 정상우 정승은 조인옥	양재 강영준 강원갑 김예숙 박정열 심현우 이경옥 정인수	



장로칼럼 정병균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

답은 기도밖에 없다

고등학교 때 작은 시골교회를 다녔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골교회라 반주자도 따로 없고, 봉사자도 따로 없었다. 나는 칠 줄 모르는 풍금을 혼자 연습해서 반주하고, 목사님을 도와 찬송가 가사를 찾는 일도 도왔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다. 당시만 해도 신학을 할까 고민을 했었다. “이 한 몸 하나님께 받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정도로 열심이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다. 우리 집은 625전쟁으로 전 재산이 날아가고, 가족들도 이북으로 납치되거나 행방 불명됐다.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전쟁통에 엄마와 누나, 나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았다. 어린 나이에 집안을 이끌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제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서원대로 큰 딸이 목사 사모가 되었다. 군대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 후에 나는 KBS방송국에 엔지니어로 입사했다. 주로 춘천과 여의도에서 근무했다. 방송국에서 근무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당시만 해도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잘 어울려주지도 않고, 인정도 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매일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하는 방송인들의 특성상 싸움도 많고, 술 마실 일이 많았다. 복잡한 방송국 생활 속에서 신우회가 그나마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 것 같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강한 방송 현장에서 신우회를 통해 목사가 된 후배도 있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36년 동안 일한 방송국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다. 중간에 명예

퇴직 권유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구상해야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의 자리를 지키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때 참지 못하고 방송국을 나간 동료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들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퇴직 후 시간이 여유로워지자 나는 골프 삼매경에 빠졌다. 하루 종일 골프연습장에 가서 살았다. 아내는 그런 나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 ‘저 사람 장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흔쾌히 들어주셨다. 하루는 골프를 치다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골프를 끊으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렇게 골프치고 싶은 마음을 접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과정을 거쳐 2008년 장로장집을 받게 되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사는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해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알아주지 않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신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임하면 좋겠다. 방송국에서는 간혹 자그마한 실수가 엄청난 방송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어디 방송사고 뿐이겠는가. 일상 속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답은 기도밖에 없다.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홍혜선 권사(여의도공동체)

병원선교 현장에서

겨울나무는 봄을 기다린다.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마다 봄이 오면 싹을 틔울게 분명하다. 새해 들어 처음 병원 봉사를 가는 날은 유난히 추웠다. 그래도 첫 주부터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나를 기다릴 누군가를 생각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내가 병원사역을 시작한 것은 올해로 17년째다. 김정숙 목사님을 도와 2000년부터 병원사역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만났던 환우들과 가족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78세 할머니는 불교신자였는데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는 손녀를 보고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았다.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모두 교회에 다녔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열려 있었다. 또 다른 침상에 누워계시던 할머니는 형제간에 우애가 남달라 보였다. 그 할머니는 흔쾌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환하게 웃으셨다.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20대 한 자매에게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자매는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다.

지금도 나는 환우들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혼들을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명도 다르다. 암 환자도 있고, 불치병 환자도 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이들을 만났다. 예전에는 한 해에 보통 50~60명을 전도했지만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명 전도하는 것도

힘들다.

남편은 내가 병원사역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전도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귀하고 복되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중한 만남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병원은 전도의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다. 병원사역은 또한 나의 훈련 학교이기도 하다. 투병하는 환우들을 만나며 인생을 배우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병원사역에 동참하면 좋겠다.

병원전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건강하기에 지금껏 병원사역이 가능했다. 오늘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뿐이다. 나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이다.

전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사람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나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인도해달라고 말이다. 전도현장에 가면 굉장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죽음과 삶은 늘 공존한다. 요즘은 틈틈이 아프리카 아기들에게 보낼 털모자를 수선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 오늘도 내 삶에서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하는지를 되새기며 산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분당B공동체)

영적 하이브리드 인생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 바로 연비다. 연비는 자동차가 단위 거리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km/L’ 단위로 표시한다. 요즘 사람들은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한다. 적은 기름으로도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한다. 몇 해 전 만해도 자동차를 고를 때 디자인, 가격, 성능을 보고 선택했다. 이왕이면 큰 차, 디자인이 멋진 차, 다양한 기능을 가진 차를 선호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차를 고를 때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한다. 왜 요즘 사람들은 디자인과 기능보다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할까? 아마 경제성 때문일 것이다. 어떤 차는 타면 탈수록 돈이 들지만 어떤 차는 타면 탈수록 돈을 번다. 연비가 좋은 차를 탈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연비 좋은 차를 선호하는 것이다. 적은 기름으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특히 선호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연비가 좋은 인생과 나쁜 인생이 있다. 연비가 나쁜 인생은 잘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말한다.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

력하고 힘을 기울였는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면 연비가 나쁜 인생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우울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것입니까?”

“열심히 살았으면 당연히 행복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비가 나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다.

반대로 연비가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합니다.”

연비가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작은 집에 살아도, 작은 차를 타도, 평범한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연비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거나 많이 배우면 인생의 연비가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한다. 인생의 연비는 돈과 지식을 채운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연비가 좋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초보 운전자인 내가 인생을 운전하지 않고,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님께 맡길 때 좋

아지는 것이다. 인생의 연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자동차의 연비를 좋게 하려면 정속 주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적인 정속 주행을 해야 한다. 영적인 정속 주행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의 연비가 좋아진다. 또 자동차의 연비를 좋게 하려면 자동차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정욕, 이기심과 자랑, 미움과 상처를 내던져야 연비가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잘 살기위해 노력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자.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달리자. 그분과 함께 달리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욕심과 상처를 밖으로 던지자.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하면 2016년은 물론 남은 인생의 연비가 좋아질 것이다. 탈수록 돈을 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살면 살수록 행복해지는 영적인 하이브리드 인생이 될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대적자를 대리자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은 사울을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이 범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영적인 현주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붙잡으러 갔다 그리스도께 붙잡히다

주님은 핍박자요, 대적자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사울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 줄 것

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행 26:15~17절).

자신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부르시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주님이 왜 그의 눈을 잠시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마 눈을 뜨고 있었으면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눈을 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잠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가 생각에 집중하고, 주님과 대화를 통해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모순을 해석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픈 이유가 있고, 머리가 아프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야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주께서 야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

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야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 주는 것을 보았다.”(11~12절).

야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야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나니아가 주님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야나니아와 같은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복음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인 시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변화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이 그를 대적자에서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 없고, 교회를 방해한 적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대적자였습니다. 야나니아와 같은 모습으로 대적자였습니다. 사울과 같은 대적자인 우리를 주님이 대리자로, 증거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온누리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서빙고 캠퍼스_공동체

구분	공동체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총무(팀장)		실행위원		
성인공동체	본부 운영위원회		박종길	송일섭	강부순 김명훈 김영욱 김지홍 남정진 문영기 문충실 민문기 박성규 박성근 박순길 박일면 박종현 송영태 심희돈 안성영 유휘형 이규천 이봉의 이영근 이정근 이태한 임희창 전영수 정광철 정문규 정수업 정영택 최성완 최주관 허필우				
	B 권역	중종로	운영위원회 양육운영팀	김경훈	정문규	오 명	김영곤 김의래 김태선 남관우 노홍규 박석호 백남인 오 명 엄현정 염관호 이상도 이인용 이창환 함공식 주수경 주용현 홍정표		
			양육운영팀			백남인	김남정 서정숙 주용현 주수경 강은주 이금자 조인숙 송경옥 엄현정		
		일산	운영위원회 양육운영팀	노치형	남정진	박호준	김성목 박두원 이승철 문재현 이성구 정세진 이운대 오재열 주강호 이영민 이봉수 고명진 최준원		
	C 권역	서대문	운영위원회 양육운영팀	이해영	강부순	심재이	강찬석 강부순 박진성 서병화 신영각 조희동 강은철 김덕현 박현 송재웅 유두석 이희준		
			양육운영팀			강은철	명미화 김순덕 채재정 김성환		
	사역팀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장례사역		손신국	이상도	윤석민	이문형	김경하 김경화 김명철 김영민 나성자 박순향 박종현 송옥희 신순철 양제분 오수제 원현숙 유연순 이문영 이상문 주덕규 최기순 최성자 황석순 황재숙		

서빙고 캠퍼스_예배

구분	통합사역팀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사역 본부	예배봉사	주차 사역팀	오은규	송일섭	조성수	강영희	강찬석 공형도 김건호 김대식 김성한 김영미 김영한 김일홍 김정호 김주영 김 준 김효상 문석곤 박구병 박동규 박석현 박정민 박찬규 박찬영 박찬웅 서원식 성광재 유창준 이경찬 이병호 이승용 이영희 이정웅 이충원 이홍찬 임규진 임무민 장철현 정병기 정성준 정영열 정제균 최광관 최성원 최정주 한명식 홍범식 홍정우 홍행국

서빙고 캠퍼스_양육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양육사역	본부	창조과학팀	이해영	이은일	하주현	오금환
리더십양육		장로아카데미	박종길	이장로	전구영	홍성호
						강영재 김소희 김 경 김서정 김선민 김성순 김종명 김창식 남남주 문해자 박경남 박금선 배명식 백갑식 심은하 안종배 여정훈 윤석진 이미영 이병일 이성근 이은미 이재구 이주만 전재우 제승모 홍은영 황승아 김명현 민문기 유재홍 이재규 정운섭

서빙고 캠퍼스_사회선교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사회선교	본부사역(중보기도)		이기훈	유진아	정진호	김춘택	강종도	공명환 김인선 김종환 김희준 남영표 심길보 이학철 최혜옥
	사회책임		일터사역		황재명	정운오	김성주	김상준 김형자 김혜전 박은영 송은영 안윤진 이소영 이승대 이영희 원원교 최미영 한성자 황유선
	사회통합		새사람사역		신동식	권영석	백종신	김영현 김춘택 김희준 양의천 정진호
								김영임 권인숙 김병중 양귀덕 윤선애 이경숙 이영애 이운대 이인혜 장용란 전태경 주권욱 최주관 하진숙

서빙고 캠퍼스_대학청년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대학청년사역	청년부	SNS (서빙고비전홀)	원유경 우윤상 이준인	이영복	김명화	이승기	멘토	이영복 김정숙 김명화 나소혜 정재민 최희령 이정금 박창복 이승기 박미선 정순란 양혜령 이현원 이원주 최혜영
							MC	조항준 유명화 조문경 이경진 이화진 김주희 백주연 송재호 남궁성 이소영 김미영 장대현 이승용

서빙고 캠퍼스_차세대

사역팀	담당교역자	실무	담당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꿈	영아1부	채기석	임요한	이길수	정인경	조영주 박성춘	정) 강주연 구창숙 권영희 권용범 김선경 김선영 김소정 김인숙 김재익 김지은 B 박관욱 박성춘 박선영 박수연 박아실 박지광 배정현 송은영 신소현 심상희 여창은 우미정 이병기 이상민 이준하 이지연 임천중 전경화 정성훈 정수연 정인경 조영상 조영주 조호기 최덕래 최희정 하주성 홍종숙 공정환 이경리 정현숙 부) 김승철 이주리 유성진 장선덕
	영아2부				신정목	김성희	정) 김동근 김동형 김성미 김성왕 김윤선 김윤정 김정환 김하나 남미영 배은영 박현진 박미진 박민규 박민정 방호지 송재웅 오민영 유승연 유정은 이광현 이보경 이순애 이요한 이진형 이현주 임경선 임은지 임동규 장부경 정상용 정현택 정혜정 조형철 최승기 최영섭 최효은 하선미 하승현 하연희 황미애 부) 고영희 김영순 박하나 박성준 손경화 이은진 이희준 유정은 전숙현 황성규 함석희
	영아3부				유금지	이재구 홍정옥	정) 고지영 김문수 김유리 김일출 김주은 김치미 김희태 남현정 마혜진 박인규 박종기 백성여 서윤숙 송태영 신윤희 엄희라 오창화 오홍화 윤수련 윤영은 이봉재 이석규 이수정 이유희 이종호 이학철 장보원 장성우 제혜영 주현주 차혜란 최용진 최윤정 최 진 최진옥 최창윤 하종숙 하지영 홍미선 홍정옥 홍진영 부) 김성환 김지혜 석혜민 손소연 안승대 정덕일
	유아1부	김성욱	김성욱	남성욱	함성실	하지원	정) 강서혜 강태연 김정훈 박혜연 손옥경 송지은 여유미 오경곤 유선미 윤우리 이상은 이옥렬 이주연 A 이주연 B 이태운 이향숙 이해정 정승숙 최은진 한지연 부) 고은지 김윤정 이고은 윤인순
	유아2부				이신숙		정) 김미영 김민영 김병기 김연주 박수아 배우림 배유림 서주현 손승희 안희상 엄시미 오수연 원원희 이민호 이정옥 임혜민 전기훈 정두리 정지윤 최혜희 부) 김형희 김미화 김민성 손미희 김정은 김태화 김희정 이지창
	유아3부				김유기	박철현	정) 구연숙 고은찬 경민주 김내환 김진희 나혜옥 박철현 송화연 이해영 원용균 유지는 임미진 전주영 지은영 한연희 부) 신미나 이나영 이주현 이지석 황보은희
	유치1부	김종호	김덕기	이봉의	윤연정	이강우 박예은	정) 금 흥 김경숙 김남희 김민정 김민지 김복숙 김영성 김재원 김정숙 김주혜 노신정 박나애 박소정 박소현 박은숙 박주영 박지원 박재민 박 현 방래정 신재길 신찬호 배은미 손혜경 신소영 신아영 심동희 안지수 양은혁 오수진 오정훈 이경남 이명진 이유택 이진상 채승미 황은정 부) 박서영 양우린 이정민 장새길 최명희
	유치2부				최혜정 손호민		정) 김경래 김문규 김상호 김수연 김은경 김은아 류승희 마혜미 명난희 박생화 박주희 손에스라 유상희 유지아 윤지은 전용학 정소현 정승윤 조이은 최고은 최세영 최혜숙 하민호 허민희 황애은 황진기 부) 강연숙 김지수 김민지 김준수 박미선 박용재 박은호 심수빈 이수민 정승원
	유치3부				한명숙	최동희 이진호 곽지혜	정) 김미승 강영주 고민성 고새봄 박윤수 박지혜 국승호 기현주 김경희 김도희 김민자 김소정 김소현 김준홍 마은영 박영민 박찬미 박승현 신예진 윤성호 윤하영 이동훈 이상하 이영희 이유진 이주호 임예린 장금식 정동희 정선욱 조연재 최윤정 한준희 한지혜 홍아름 부) 고민성 김상섭 김양희 김현철 변영주 윤진호 한승주 현지혜
	예꿈놀이학교	채기석	정지혜	이길수			정) 박석재 송태영 이수정 이예은 정현택 최선희 홍성희

서빙고 캠퍼스_선교사역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목요선교집회	이재정	최주관	변찬구	노전기	김채수 백종신 장애자 송정숙 이종택 노정은 김계순 조성현

조직도

제1082호 | 2016년 1월 10일(주일)

캠퍼스 선교사역	선교사 케어	멤버케어/멘토링	황종연	이승배	이승배	한숙영	김승규	신성복 이남수 김윤식 이강희 전취경 이은정 엄현정 송윤희 김정태 오정옥 이재철 백유현 유지연 장진형 유숙정 이지웅 심하정 김구환		
		싱글케어						정은혜		
	지원 운영	이재정						남성욱	허복만 홍법식 이승배 하성기 김영환 남명현 신성복 문영기	한숙영 김태정 김창목 정기숙 김영숙 최현목 김희영 김정하 조순이 김윤정 최항미 김은일

양재 캠퍼스 공동체

구분	공동체		담당교역자	대표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본부 운영위원회			이상준	나영욱	구재영 권오습 권윤성		권철준 김명세 김용기 김창옥 류기범 송영범 양춘경 이석일 이정구 이홍선 장광열 정영기 정태경 조성현 한덕중 함정철 허광수													
성인 공동체	1권역	강남 A	양육운영팀	신학철		김동규	김동규 김영수 이미향 전윤옥 하 영													
	5권역	브릿지33+	운영위원회	윤경숙	이홍선	이수준	박호림 지은채	멘토(김영관)		고선옥 고종환 권형민 김용배 백대원 서보희 오경옥 이일순 장봉기 정영환 조성미 최문희 최선재 허호										
								애배팀(최문한)		권경은 김남수 김희정 백서우 신혜영 심명자 예정우 윤창식 이성민										
		POINT5	Jesus Toddler	윤준석	양춘경	이주연	신동희 조 선	일대일순사관(김민경) 김명조 김현정 이상민 장민구 홍숙경												
			유영순	이재준	김범준 김수지 노한나 박상경 신애스터 이지원 조대진															
	권사회, 권사스쿨				이정자	이희원	임원 장지선 한진옥 한성희 김중순													
	장례사역				김종순	-	공동체 대표 권혁춘 김성란 김영미 김정란 김현옥 박현미 백미애 백연숙 서경윤 신수는 양점숙 윤은희 이혜숙 황윤정 황인경													
맘애크스(싱글맘사역)		차윤복			박진아	권혁춘 김성란 김영미 김정란 김현옥 박현미 백미애 백연숙 서경윤 신수는 양점숙 윤은희 이혜숙 황윤정 황인경														
한동대사역		심상선	신혜선	강신원 박경현 구영진 권혁춘 남경화 노정희 문혜숙 민병춘 손화자 이윤숙 이인경 이한성 지정호																
						김보경 김영식 배후자 백연숙 백인숙 이선원 이영순 이은숙 이정자 이환인 임소자 최금자 최순례 한춘복														

양재 캠퍼스 예배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사역	예배성례팀	세례	오민 윤경숙(유아)	이재준	김기선	방병일	김학신 고아라 김양희 서동주 윤여홍 최지연	정재현 이화영 홍해남 김남식 김명현 문창극 류기범 박해한 강동수 김대균 김상용 김수웅 김영환 김은기 김준배 백진수 송태희															
	예배봉사팀	4부예배 분당A 송파 푸른누리	김태웅 김소리 이상진	안내_ 류기범 한덕중 김인선 정재현	김중만 임채열	임채열 김중만	신상호 이상수 정대성 정우는 정재환 한복규 박혜경 윤항미 강진아 김명리 김미정 김중순 위해숙 이명옥 주주임 한양희 나영욱	배기영 김철주 김장렬 심재욱 한덕중 박승우 김인선 임호철 황종수 강승규 차기환 차준근 엄종훈 임채열 강세천 김남수 권형택															
		주일예배안내						이명렬 정지석 김지태 김승구 강세천 최경호 이명렬 정지석 엄종훈 차준근 정상철 노현순 정경희 백경은 백경미 안정희 김미란	고선미 이승희 김은미 박임희 김중순 백경애 윤혜영														
		7부예배(9시예드는별) 서초 A 파천의왕	김성원 김도균	안내_ 조성현 함정철	백승찬 홍승우	지상목 남영표		박홍준 김상선 김권일 김준현 황윤정 김영미 권은숙 김기섭 김상목 김상선 김선희 김신복 김영희 김용태 김점섭 김준현 김진우	김창배 김희자 나승주 노경식 박건용 박노숙 박명애 박재형 배종인 백선주 서동화 손기완 신맹식 심현봉 심성규 안기춘 엄은조														
	주중예배안내	새벽1부	이상준 김태웅 한영철	조성현	윤종찬	이지훈	권수진 김바론 김인희 김정남 김현정 류효정 문규례 박신애 성지은 안경순 윤종찬 이길라 이선영 이선희 이지훈 이현숙 정상원	조혜림 한정희 홍서영 홍주연															
예배찬양팀	예배인도	새벽찬양팀	한영철	조성현	윤종찬	이지훈	이현숙 이지훈 박신애 김정남 안경순 한정희 김인희 이길라 성지은 이선영 정상원 문규례 이선희 홍주연 홍서연 조혜림 권수진	김현정 김바론 류효정															

양재 캠퍼스 양육 가정 사회선교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양육사역	말씀양육	OBC(은누리바이블클럽)	윤경숙	박동현	김영관	고종환 최선재	강필선, 김미혜, 노정은, 오영신														
	영성양육	예수제자학교 JDS(저녁)	김영배	백흥기	김정민	오범규 양오순	강경희 고종진 김경남 김기덕 김도환 김명선 김재식 김정열 김희희 김진모 박재범 박현숙 백위현 안동석 유미숙 윤지미 이강민 이경애														
가정사역	헬로맘		윤경숙	함정철	강소영	임노아	강소영 김세현 김유경 김혜정 김희정 명진희 박지연 윤하음 이항주 임봉자 최문실 최선정 최혜진														
사회선교	사회통합	한터(탈북민사역) 하나공동체	김상수	황의서	장석진	장형식	권정희 김은영 김정아 김혜련 박철욱 박현주 손이정 신호국 신희남 이경우 이석미 임아영 장석민 표영희 하유정 홍장기														

양재 캠퍼스 여성사역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여성사역	수요여성예배	예배진행	찬양사역	그레이스 Grace	유영순	이재준	이현숙 서현선(성가사)	권윤옥 윤 선 최정미	심미숙 최은정 김완선 석지영 심주영 김경선 김미영 박은경 김정희 김인숙 안경실 이영주 송영옥 김미희 윤경희 이가연
	양육	성경일독학교				신용년	박순천 김숙경 최규순	최영아 박영희 염수진 조은혜 김현정 한성실 임성아 문계현 최정미 소현숙 강민영 김주연 김지선 김혜미 박영미 방혜영	진숙현 이규영 이명수 이숙영 이숙희 이은실 정주연 황인향
	좋은 이웃모빌팀	남부구치소				강정례	전미옥	이현숙 최미애 유인선 김영 지선정 김준영 최영아 김숙경 이연승 이경화 김현미 김현순 이경혜 박보순 호수 조상은 윤애경	류필분 심미숙 이정자 박경숙 양점숙 김병선 한정림 김홍숙 윤미한 엄경숙 손윤자 김춘자 이윤숙
								김은 김순희 전미옥 이경애 광경현 이연승 임지현 박순천	

부천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총무)	실행위원	
목회행정	목회지원		김요성	윤석우	정요찬 전우정	강수지 배지철 손미혜	
	소망	운영위원회	지대근	허복만	이재춘	송인선 이상일 이우진 이용준	
공동체	민음	운영위원회	문영재	윤석우 손태웅	양재광	김태형 정재운 최창호 황근배	
	여성사역	예배	안내팀	권오향 김혜경	정영규	신은주 함소영	김민하 박명숙 이명신 정경자 조명자 변윤경 홍성신
선교사역	와이미션	박형준	윤석우	박문서	김명동	고정희 공순남 김나환 김도훈 김영중 노영학 박외숙 박정아 박정찬 박정윤 박태규 방순애 배승호 배지연 백현경 안선일 임규하 정경옥	
						정명숙 조원락 최광자 최혜영 한 규 함영희	

수원 캠퍼스

사역팀		교역자	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사역	예배지원	성찬	이원진	김 중	안창남	조병모
						구선희 김동욱 김양숙 김중탁 왕시은 이경자 이임철 최수연 한상철

대전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공동체	성인	동누리	운영위원회	정용규	홍의택		유봉국	천영무 김윤수 강귀형 최태인 유병진 윤해명 김광식 허은덕 정석순
			양육운영팀		천영무		유병진	강귀형 김중순 최태인
	중보기도팀		박태영	홍의택	이은형	박지혜	강미선 강지은 권해원 김미선 김선희 김현정A 김현정B 김혜영 류호숙 박경은 박일성 서승희 석건 신명숙 심미정 양보란 엄영순 오명숙 오은숙 윤화진 이다은 이세은 이수경 이순기 이원희 이임숙 임선영 차미자 차정미 최희정 하상희 홍성아 황선영	

남양주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공동체	남양주 A	장례	조병홍	홍종철	김재원	김기환	권순희 김영숙 김종익 서재웅 안윤진 윤석란 전규희 전성철 정미숙 정진숙 김병태 김원환 김진구 전성철 한승만
예배본부	찬양 사역	주 영광 찬양사역팀	박윤현	임현태	오경석	박 원	최재영 안은경 최글로리아 정한상 최윤희 이기란 양지연 최영집 고용욱 구정호 권순희 김원경 김은실 김주리 김진경 김충혁 김현아 남영택 윤 민 박선이 박원 박은숙 백관선 안윤진 안희갑 양은진 오경숙 오영숙 유우현 유원정 유원정 이경숙 이민리 이만돌 임순이 전재현
	차 세 대 사 역	영아부	박승훈	조요구	김경희	김기선	정) 권오빈 김민경 김신일 김은정 김정원 김혜진 배기윤 손덕선 송혜영 이정은 황수란 황현정 부) 김희경 이석우 정성호 황진영
유치부		이다솔		권현정	조미영	정) 강은자 김성현 주영아 박정주 장서원 최현주 태규령 부) 박선우 배빛나 윤혜영 이미령 이은지 이지연 정혜진 조유미	
유년부		김선재		권영석	김옥순	이수미	정) 강연주 김의환 김재형 민현숙 설경숙 신지숙 양선태 오상진 오재은 윤수진 이정아 임선경 부) 김성령 이재원
초등부		김승관			최태원	백미연	정) 강소정 김혜경 유성권 유재권 유정태 이효선 정영자 황윤정 부) 박은진 양정아 이선영 이수진
중등부		박승훈			최성훈	황준옥	정) 강승호 김선희 김수현 김주현 김주희 김창희 김형구 임혜경 이승우 이민복 부) 김선화 김원식 박정우 박정희 신동호
고등부		김진하			최황규	정성환	정) 김동목 오성주 이재영 신현선 최선우 부) 박기란 박한솔 유은진 조유진 정건희
여성사역본부	주방팀	김현실	홍종철	임원영	이화영 A	권순희 박은숙 A 손민숙 임순이 정민숙	

평택 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예배사역	주일예배	3부	박성천	박지수	윤정호 문계현 김예겸 박서현 조윤정 김형정 김언석 최엘림				
		몽골			김현순	김선홍	구분규		
		인도네시아			마주 마누롱	윤춘상	수메다 아브라함		
	영어통역	이경추	이주연	임정재 이윤길					
	예배의전	예배의전	박성천	김명중	최명자	이지은	이희정		
	예배지원	방송		김명중	최영섭 윤희은				
세례		박지수							
	성찬		최명자		김중숙 윤오예 임복자 최명자				
양육 사역	새가족사역		김종민	박지수	김종숙	문준호	김현록 이상현 박해은 정정성 윤옥란 이영희 유정렬 홍의철		
	일대일사역			박지수	김경돈	이희정	정충용, 이현영, 김기복		
	OBC				송미선	구궁희 김경돈 정정성 김유영 김종숙 이경연 송영미 임미선			
	성경일독				문은성				
	순장사관학교				유승곤				
	시니어 아카데미			강동철	이성용	강동철 이경추 윤관영 정영택 윤정임 김명중 최명자 김선중 이성용 한정에 이정옥 박옥수 김현순 이경연 지명서 윤오예 구분규 송미선			
선교사역	러빙핸드		김종민	김명중	조요섭	이지은	윤정호, 문계현		

강동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 행 위 원										
	예배총괄		최원준	허영남	서수진	이진우	서동희 김세일 최지선 윤석운 이주현										
예배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이미령	나상권	황미정	박현숙	권유록 김나영 김진희 류승욱 배원식 백세흠 서정희 심린선 유숙경 윤인선 이마나 이신미 이천숙 이혜영 전미진 최선호 홍준영									

양지캠퍼스

구분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전도/선교사역	서빙핸즈		황준서	함선호	정태선	설정란	박은숙 김정은 김미숙 신정미 허숙희	
교육	꿈땅	소년부	양승순	최상근	정미정	박은숙	황정환 김인숙 윤지성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허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홀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홀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서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단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꿈방 사이닝키즈 모집(말씀암송학교)

대상: 초등학교 1~6학년(2016년도 기준)과

부모님 중 한명

일시: 3/5(토) 오전 10시~12시

(학기당 10주, 1년과정)

내용: 12학기 창세기 12장 암송

문의: 황연신(010-5442-8639)

두란노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일시: 1월23일~3월5일(매주 토요일

오후5시) *2/6, 2/20 휴강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회비: 120,000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김재덕(010-9789-7316)

OEM한국어교실 교사(봉사자)모집

요일: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서류: 신앙간증문, 자기소개서

자격: 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2016 살롬 예루살렘 대회

일정: 6월 18일(토)~6월 26일(일)

비용: 약 60만원

2016 살롬 예루살렘 대회&그랜드 캐년

일정: 6월 18일(토)~6월 29일(수)

비용: 약 1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문의: 한민기(02-792-7076,

kibikorea@empas.com)

키비 공연팀 주연/조연 배우 모집

내용: 11회 공연('노헤미야', '룻',

'에스터', '이삭과 리브가')

자격: 노래와 춤에 특기가 있는 누구나

문의: 성혜경 목사(010-8893-8866)

샘물중고등학교 교직원 채용

대상: 성경, 수학, 체육, (책임)연구원, 사회,

목공

접수: 1월 22일까지, www.smca.or.kr 참조

샘물중고등학교 신입임성 추가 모집)

대상: 16학년도 기준 예비중등(6,

중1~2, 고1

접수: 2월 1일까지, www.smca.or.kr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햇볼트리니티 북토크콘서트

일시: 1월 16일(토) 오후 5~7시

장소: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갤러리

문의: 010-9833-9358

양재 3부 예배 찬양사역팀 모집

일시: 1/24(일), 1/31(일) 13:00

장소: 양재성전 비전홀B(식당 옆)

대상자: 온누리 등록교인, 세례교인

*연습시간: 주일 13-18시 / 월 20-22시

준비: 찬양곡, 복

복음의 통로

유럽난민하이웨이

희망을 찾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8개국, 3000km 난민 하이웨이 현장을 통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봅니다.

내레이션 장광
방송시간 1월 10일(일) 오전 10시 30분
1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CGNTV 팟캐스트 **2016년**
1월 성경일독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오디오 성경을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검색 창에
'CGNTV' 를 입력해 해당 프로그램 구독

아이폰 App Store에서 'Podcast' 설치
안드로이드폰 (LG, 삼성 등) Play Store에서 '캐디팟캐스트' 설치

Tv 프로그램



▷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11(월) 오전 11시 30분
고향교회의 내레이터 최수민 성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경북상주 구서교회를 직접 방문한 이야기입니다.(내레이션: 차태현/배우)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1/12(화) 오전 11시 30분
탈북민의 인권과 정착에 힘쓰고 있는 세이브 NK(김범수/사무총장)의 사역소개를 듣고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4(목) 오전 11시 30분
하나님을 만난 후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일터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온 <평신도의 발견> 저자 이병주 변호사의 간증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10(주일)	1/11(월)	1/12(화)	1/13(수)	1/14(목)	1/15(금)	1/16(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다큐]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화에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15:3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홀 애두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컨퍼런스] 새 하늘과 새 땅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06:3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사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5:30 [다큐] 복음의 통로, 유럽 난민 하이웨이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시도행전	05:20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06:30 CGN 투데이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산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민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9:0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22:30 미션 로드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